Symphony No. 6 "Sinfonia semplice"

- □□

정보

Carl Nielsen: Symphony No. 6 “Sinfonia semplice”
작곡가: Carl Nielsen (1865–1931)
작품명: Symphony No. 6 “Sinfonia semplice” (FS 116, CNW 30)
장르: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924–1925년
초연: 1925년 12월 11일, 코펜하겐 Odd Fellow Palæ, 작곡가 지휘
선행 연주: 1925년 11월 1일 스톡홀름에서 제 1악장만 연주
초판 /전승: 1938년 사후 총보, 2001년 Carl Nielsen Edition 비평판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6(Nielsen)

Carl Nielsen의 교향곡 제 6번, Sinfonia semplice는 1924년부터 1925년까지 쓰인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 1925년 12월 11일 코펜하겐에서 작곡가 자신이 지휘해 전곡을 초연했으며 , 약 32–35분 동안 네 악장을 이어 간다. Tempo giusto의 불안한 행진, 목관과 타악기가 서로 다투는 Humoreske, 진지한 푸가가 흩어지는 Proposta seria, 여러 표정이 겹치는 Tema con variazioni가 차례로 나온다. “간명한 교향곡 ”이라는 제목과 달리, 이 작품의 단순함은 작은 몸짓과 건조한 유머, 현대적인 불협화음을 통해 전통적인 교향곡의 표면을
낯설게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개요
닐센은 제 6번을 시작할 때 이전 교향곡보다 더 부드럽고 목가적인 작품을 생각했다. 그러나 16개월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음악은 처음의 계획보다 훨씬 복잡하고 양가적이었다 . 글로켄슈필과 민요 같은 주제가 걷기 시작하면 곧 현악과 목관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끼어들고, 후반에는 금관이 거대한 불협화음으로 솟아오른다 . 웃음과 불안이 같은 악장 안에서 번갈아 나타난다.

이 교향곡은 규모를 키워 장대한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악장의 짧은 악기 대화, 세 번째 악장의
무너지는 푸가, 마지막 악장의 변주와 코다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음악의 질서를 시험한다. 닐센이 말한 “Sinfonia semplice”는 순진한 옛 음악을 그대로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한 시대의 음악을 간결한
몸짓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처럼 들린다.

작곡과 두 번의 첫 연주
닐센은 1924년 여름 덴마크 북쪽의 스카겐에서 마지막 교향곡을 시작했다. 1925년 초 해외 여행으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 귀국 뒤 제 3악장을 마무리한 다음 가을에 작업을 다시 이어 갔다. 마지막 악장에는 1925년 12월 5일이라는 날짜가 남아 있어, 전곡 초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악보가 완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1일 스톡홀름의 Kungliga Musikaliska Akademien에서는 제 1악장만 먼저 연주되었다 . 전곡의 첫 공개 공연은 12월 11일 코펜하겐 Odd Fellow Palæ에서 Royal Danish Orchestra가 맡았고, 닐센이 직접 지휘했다. 11월 27일로 예정된 공연이 연기되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실제 전곡 초연은 12월 공연이다.

초연 직전 인터뷰에서 닐센은 두 번째 악장 Humoreske를 시대의 음악적 혼란을 비추는 작은 장면으로 설명했다. 이 발언은 작품에 구체적인 줄거리를 부여하기보다 , 목관과 타악기가 각자의 취향을 고집하며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Sinfonia semplice”라는 제목
오늘날 작품의 일부처럼 굳어진 “Sinfonia semplice”라는 제목은 닐센 생전의 모든 악보에 적혀 있지 않았다. 왕립도서관의 작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제목은 1925년 첫 공연의 프로그램과 초연 이틀 전 인터뷰에
등장하지만 , 1938년 사후 인쇄 총보에는 보이지 않는다. 후대의 총보와 파트에서 제목이 음악 자료에 다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표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Semplice’는 ‘단순한 ’이라는 뜻이지만 음악은 계속 복잡해진다 . 첫 악장의 민요풍 주제가 불안한 음형으로 변하고, Humoreske에서는 여러 악기가 짧은 소리를 주고받으며 , 피날레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여러 변주로 분해된다. 제목과 실제 음향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 교향곡의 유머다.

편성
제 6번은 다음과 같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사용한다.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 ·건반: 팀파니, 트라이앵글 , 심벌즈, 탬버린, 큰북, 작은북, 글로켄슈필 , 실로폰, 첼레스타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닐센은 여러 악기를 거대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각 악기에 자기 목소리를 부여한다. 글로켄슈필은 맑은 종소리로 걷는 리듬을 만들고, 작은북과 심벌즈는 건조한 농담을 끼워 넣는다. 네 대의 호른과 트롬본, 튜바가 늦게 들어올 때는 앞서 들은 실내악적 대화가 한꺼번에 확대된다.

네 악장

1. Tempo giusto
첫 악장은 글로켄슈필과 가벼운 발걸음 같은 주제로 시작한다. 목가적인 산책을 떠올릴 만한 선율이지만 , 현악과 목관이 그 주제의 틈을 찌르기 시작하면서 표면이 흔들린다. 하강하는 바이올린 선율은 주제가 계속 걷도록 붙잡는 대신, 어디론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준다.

악장이 진행되면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가 뒤늦게 등장한다. 작은 음형과 가벼운 타악의 세계가 커다란 금관의 압력과 맞부딪히고 , 불협화음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인다. Hyperion의 Stephen Johnson은 이 흐름을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불안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Tempo giusto는 빠르기를 과시하는 말이 아니다. 리듬이 일정한 걸음을 유지하면서도 , 악기마다 그 걸음의 무게와 방향을 다르게 느끼게 한다. 마지막에 처음의 선율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 더 이상 순수한 목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금관의 소음과 현악의 날카로운 몸짓을 통과한 뒤이기 때문이다.

2. Humoreske. Allegretto
Humoreske는 짧고 건조한 악장으로, 목관과 타악기를 중심에 둔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과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작은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며, 누구도 오래 하나의 선율을 유지하지 않는다. 닐센은 초연 메모에서 이 악기들이 각자의 취향을 고집하며 다툰다고 설명했다.

마이테 코타의 연구는 분절된 음형 뒤에 11음에 가까운 뒤틀린 클라리넷 선율이 놓인다고 분석한다. 이 선율은 당시의 현대주의 음악을 흉내 내면서도 어딘가 어설프게 비틀어 놓은 가면처럼 들린다. 여기서 유머는 즐거운 춤의 웃음이 아니라, 너무 진지한 음악적 제스처가 스스로 우스워지는 순간에 가깝다.

목관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오케스트라의 권위는 작아진다. 큰 금관은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만 , 결국 짧은 음과 불완전한 문장이 남는다. 네 악장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지만, 제목의 “semplice”가 순진함과 풍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3. Proposta seria. Adagio
세 번째 악장의 제목은 “진지한 제안 ”이라는 뜻이다. 현악이 어둡고 비극적인 푸가를 시작하면, 음악은 앞 악장의 농담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듯하다. 주제는 차분하고 엄숙하지만 , 곧 성부들이 서로를 놓치며 선율이 길을 잃는다.

음소거한 바이올린과 부드러운 목관이 돌아오면서 푸가의 힘은 서서히 약해진다. 악장은 거대한 결론으로 향하기보다 , 맴도는 음형과 멀리서 들리는 호른 속으로 가라앉는다 . Tarrant의 연구는 “진지한 제안 ”이라는 제목이 간명한 형식을 예고하는 듯하면서도 실제 음악은 형식 ·조성 ·서사에서 훨씬 복잡하다고 분석한다.

Proposta seria의 슬픔은 한 가지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 앞의 Humoreske에서 분절된 말들이 이어지지 못했다면, 여기서는 진지한 말이 끝까지 완성되지 못한다. 잠깐의 안식이 찾아와도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그 불완전함이 마지막 변주 악장으로 넘어가는 긴장을 만든다.

4. Tema con variazioni. Allegro
피날레는 짧은 소용돌이 뒤에 바순이 변주의 주제를 제시하며 시작한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긴 음을 붙들고, 현악과 타악이 그 주변에서 움직인다. 주제는 이후 여러 변주를 거치며 유쾌한 춤, 거친 행진, 불안한 소음, 텅 빈 정적의 표정을 차례로 얻는다.

변주곡이라는 형식은 하나의 주제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처럼 보이지만, 닐센은 변주가 진행될수록 주제의
정체를 흐린다. 어떤 변주에서는 리듬이 빠르게 쪼개지고, 어떤 변주에서는 금관과 타악이 무게를 더하며, 다른 변주에서는 목관의 짧은 선율만 남는다. 음악의 질서는 유지되면서도 각 악기는 계속 다른 얼굴을 쓴다.

마지막 변주와 코다에서는 큰북, 실로폰, 튜바가 강한 상징으로 들릴 수 있다. 닐센의 아들 Thorvald가 전한 회고는 큰북을 죽음의 노크, 실로폰을 뼈의 소리, 튜바를 검은 공허에 비유하고, 작곡가가 그 죽음에
맞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는 작품을 듣는 한 가지 상상력을 제공하지만 , 악보에 붙은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다.

결말은 완전히 안정된 찬가가 아니다. 빠른 움직임과 검은 유머가 끝까지 남은 채, 마지막 음에서 음악이
갑자기 삶을 선택하는 듯한 기세를 보인다. 죽음을 이긴다는 서사는 회고에서 나온 비유이지만 ,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장식음과 타악의 번쩍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청취의 인상은 분명하다.

목가적 구상과 현대적 풍자
닐센은 처음에 이 교향곡을 “완전히 목가적이고 , 이전 것보다 더 매끄러운 ”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Hyperion은 1922년의 목관 오중주에서 들은 악기들의 대화가 새 교향곡의 구상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완성작에서는 그 대화가 다정한 합주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말을 가로채는 풍자로 변한다.

AllMusic은 제 6번을 닐센의 여섯 교향곡 가운데 가장 감정적으로 모호한 작품으로 묘사한다. 짧은 유머와
어두운 아이러니가 한 악장 안에서 나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모호함은 곡이 결론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정서로 모든 재료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다.

전간기 음악 속의 위치
제 6번은 후기 낭만주의의 거대한 교향곡을 그대로 이어 가기보다, 소규모 실내악 같은 악기 대화와 불협화음, 다성적 분절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닐센이 전통을 버린 것도 아니다. 네 악장과 변주 형식은 고전적 외형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악기와 리듬의 역할을 새로 배치한다.

덴마크 음악학자 Christopher Tarrant는 이 작품이 간명한 제목과 어린아이 같은 주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형식과 조성은 복잡하다고 분석한다. 영웅적 돌파나 비극적 몰락으로 곧장 이어지는 서사를 거부하는 점이 전간기 모더니즘의 한 특징으로 읽힌다. 이 교향곡은 거대한 선언 대신, 작은 소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다시 모이는 과정을 보여 준다.

초판과 현대 판본
닐센 사후 1938년에 Emil Telmányi가 편집한 총보가 출판되었다 . 표지에는 1937년이 인쇄된 판본도 있어 서지 기록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1950년대 총보와 파트에서 Sinfonia semplice라는 제목이 악보 자료에
널리 나타났고, 왕립도서관의 Carl Nielsen Edition은 원고와 초판, 파트를 다시 대조해 2001년 비평판을
냈다.

현대 비평판은 작곡가가 승인한 상태를 우선하고, 필사본과 인쇄본 사이의 보정과 차이를 비평 보고서에
남긴다. 따라서 1938년 총보에서 들리는 관행과 2001년 판본의 악보 지시를 같은 종류의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연주자는 판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청취자는 네 악장의 흐름만으로도 작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수용과 주요 레코딩
초연 당시 코펜하겐의 평론가들은 제 6번의 낯선 유머와 형식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BBC Radio 3는 이후에도 이 작품이 닐센의 여섯 교향곡 가운데 가장 자주 연주되지 않는 곡으로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낮은 공연 빈도가 음악의 완성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최근 녹음과 편곡은 각 악기의 개성과 Humoreske의 풍자를 다시 들려준다.

Colin Davis / London Symphony Orchestra (LSO0715, Hyperion): 2011년 런던
Barbican 녹음으로 총 34분 51초다. Stephen Johnson은 글로켄슈필과 발걸음 같은 첫 주제가
불안과 금관의 폭발로 바뀌고, Humoreske와 Proposta seria, 변주 피날레가 검은 유머로
이어진다고 해설한다.
Herbert Blomstedt / San Francisco Symphony: BBC Radio 3의 Building a Library에서 비교된 녹음이다. 빠른 악장의 명료한 리듬과 목관의 개별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수용 사례로 소개된다.
Ulf Schirmer / Danish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 같은 BBC 프로그램에서 비교된 덴마크 계열의 연주다. 닐센의 모국 오케스트라가 Humoreske의 건조한 농담과 피날레의
변주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피는 출발점이 된다.
Hans Abrahamsen의 18인 편곡과 Alexander Vedernikov의 지휘: Gramophone의 Andrew Mellor가 소개한 현대적 수용이다. 작은 앙상블로 옮기면 각 악기가 서로를 밀어내고
응답하는 구조가 더 투명하게 들리지만, 편곡판의 효과를 원곡의 표준으로 바꾸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주요 자료

Royal Library, Catalogue of Carl Nielsen’s Works CNW 30: 작곡 과정, 두 번의 첫 연주, 별칭과 초판 전승.
Carl Nielsen Edition CNU II/6: 현대 비평판의 편집 원칙, 악장명, 초연 전후의 작곡가 발언. Carl Nielsen 150 år, Symphony No. 6: CNW 30·FS 116, 편성 ·작품 메타데이터.
IMSLP, Symphony No. 6, CNW 30: 악장 ·초판 ·평균 시간 ·공개 악보.
AllMusic, Symphony No. 6: 목가적 구상과 완성작의 유머 ·아이러니.
Hyperion, Symphony No. 6: Davis/LSO 녹음, 악장별 음향과 작곡가 회고.
BBC Radio 3, Building a Library: 초연 수용과 녹음 비교.
Christopher Tarrant, Danish Yearbook of Musicology: 형식 ·조성 ·서사에 관한 학술 분석. Maite Kotta, Humoreske 연구: 두 번째 악장의 분절 질감과 현대주의 풍자 해석.